

색깔론과 코드의 오해

문예진흥기금 심의 결과에 대한 시비에 대하여

장 석 원 · 전남대 교수

한국의 문화적 칼라?

정치권에서 코드 인사가 문제로 떠오르더니, 문예진흥기금 지원 심의 결과를 두고 코드 편파 지원으로 간주하며 요란스럽다. 그동안 소외받던 민예층 사람들이 대거 심의에 참여하고 저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논리이다. 과거에 비해 많은 교체가 있었고 또 그 혜택을 조금 더 받은 층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꼭 이것을 색깔론으로 규정해서 이를테면 불그스레한 칼라가 독점했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한국의 문화적 칼라가 붉은 색 아니면 푸른 색이라는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동안 혜택을 누려온 푸른 색 계통은 오리지널 기득권 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제 제기의 중심에 있는 오상길씨는 진흥원 측의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총 1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온 1급 수혜자였다. 그런데 이번에 받지 못했다고 심의위원들을 모두 색깔론으로 몰아붙인다면 이는 중대한 자가당착의 착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역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간 10년 간 지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물론 그 액수는 미술평단을 발간하는 데에 일부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이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번에 받지 못했다면 좀 쉬었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간 잘 받아 왔는데, 심의위원이 바뀌면서 짚린 것은 무슨 이유냐 하는 식의 항의는 그리 설득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문화예술기금 지원을 비롯한 예술지원 시스템이 아직 발달하지 못하였다. 선진국 수준의 다양하고 정교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자금원이 필요하다. 이 말

은 지금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점들을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의에 들어간 위원들은 무지하지도, 타협하려 하지도 않았다. 심의 분위기는 그 어느 심의보다도 공정했고 가치있는 곳에 기금을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심의위원 전체 성격 상 지원 방향이 달라진 측면은 있겠지만, 그 내용은 갈라먹기 식의 답합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성격의 심의는 공정성과 함께 참신한 가치로 토론하고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득권 층의 일방적이고 기술적인 요구를 제어하는 것도 심의의 공정성과 연관된다고 본다.

예술계의 비생산적 논의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시비에서 불쾌하고 황당했던 것은 심의에 관계했던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색깔론으로 몰고 간다는 점과 이와 관계지어서 너무 함부로 매도한다는 점이었다.

예술계의 논의가 정치권 못지 않게 저질과 파벌을 일삼으면서 비생산적 논의로 간다면 이는 진흥당 싸움을 자초하는 것 뿐이지 않은가 하는 개탄이 나온다.

오상길씨는 필자를 비롯한 상당수의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미술A 분야(12명)

최민(위원장, 평론, 민족미술인협회 고문), 김호석(문예진흥원 이사, 한국화, 소위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 손장섭(현실과 발언, 양화, 민족미술인협회 대표 역임), 최태만(미술인회의, 조각, 소위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 김수천(서예, 소위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 홍순명(미술인회의, 설치), 장석원(평론, 소위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 정현이(평론, 미술인회의), 박신의(평론, 미술인회의, 소위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 최광호(사진, 최공호(공예), 김원(건축)

여기서 필자를 비롯해서 박신의, 김수천, 최태만, 김호석 등에게 모두 '소위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이라는 꼬리표를 붙이

고 있다. 오상길씨가 말하는 '소위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비판적 리얼리즘 앞에 붙는 '소위'는 또 무엇인가? 소위 민중 냄새가 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붙여준 이름인가? 나는 한번도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관점을 주장하거나 그 대열에서 활동해 본 적이 없다.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게는 생소하다.

그리고 그 앞의 '소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오씨의 냉소적 표현 아닌가? 바로 이런 관점·표현 때문에 오씨의 주장은 억지이고 그 자체가 색깔론의 재탕이라는 범주를 벗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모자란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담보로 표를 얻기 위하여 선거 때마다 지역적 갈등을 자극하는 행동이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오씨가 말하는 '소위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의 내용은 이렇다.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현대미술학회>, ... <서울현대미술연구소> 등 우리 미술계의 이론연구 분야를 이끌어 온 주요 학회들이나 연구단체들의 지원들 역시 전부 탈락시켰다. 그야말로 막강한 그러나 지독한 당파성 아닌가? ...

이것은 한마디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자신들과 미술의 코드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저의가 아닐 수 없다. 앞선 세대들의 편파성을 이마에 핏줄을 돋워 가며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젠 한술 더 떠서 남의 손발을 묶어 놓자는 비열한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말해온 현실의 참여가 이런 것이고, 비판적 리얼리즘의 실체가 이런 것인가? 바로 이런 비겁한 자들이 참여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술계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화합을 통해 개혁의 길로 나아가자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대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오씨가 어떤 의도에서 이 불행하고 동매한 용어를 썼는지 나타나는 곳이다. 과거의 사회비판세력을 오씨는 그렇게 부르고 또 이 세력 전체가 참여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있는 비겁자라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적시할 인물이 한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의에 관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몰고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저급한 정치적 계산으로 전락해가는 장면이다.

가치있는 예술적 논쟁이 되어야...

내가 심의 현장에서 논의하고 느꼈던 분위기는 이보다 훨씬 깨끗하고 민주적이며 순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문예진흥기금이 관례적으로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막고 예술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가치있게 사용되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더 부연하자면, 가치있는 것을 더 드러내고 기회를 더 나누어주자는 데에도 공감하는 흐름이 있었다. 이것을 '소위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이라고 부른다면 오씨는 참 무분별한 사람이다. 이런 종류의 개혁은 모든 분야에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가치인 것이다.

과거의 권위주의나 썩기 쉬운 파벌주의를 벗어나자는데 무슨 놈의 리얼리즘 어찌구하는 변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박신의씨는 이 망령같은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규정에 대하여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오상길씨는 저를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저는 모더니스트입니다. 아니 포스트모더니스트입니다. 아니 소셜리스트입니다. 아니 상징주의자입니다. 표현주의자이고요. 게다가 다모 폐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화내고 웃고 슬퍼하고 소리지르고 우울해하고 기뻐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처럼, 단일한 '이즘'으로 묶을 수 없는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문제는 아주 개인적이고 작은 데서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은 채, 멸절한 사람을 종이짜으로 만들고, '민'자로 사람을 묶어버리면서 용공적 해석을 아무런 부끄럼없이 자행하며, 전문인을 한낱 자기 소속 단체의 이익이나 챙겨주는 소인배로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건가요!..."

필자는 한국의 예술 논쟁이 아직도 색깔론 정도를 맴돈다면 희망이 없다고 본다. 추접스럽게 진흥기금 수혜 여부를 논하고 싶지도 않다. 논의의 중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에 따라 논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아닌가.

원로 전위예술가인 이승택씨는 오씨가 벌이고 있는 '한국현대미술 다시 읽기' 세미나에 갔더니 거기 참여한 이론가들이 과거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게 국민학교 선생 수준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현대미술사가 아직 정

2004 문예진흥기금 심의 분위기는 그 어느 심의보다도 공정했고 가치있는 곳에 기금을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심의위원 전체 성격상 지원 방향이 달라진 측면은 있었지만, 그 내용은 갈라먹기 식의 담합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성격의 심의는 공정성과 함께 참신한 가치로 토론하고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득권 층의 일방적이고 기술적인 요구를 제어하는 것도 심의의 공정성과 연관된다고 본다.

리가 안되어서 그 실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씨의 현대미술 다시 읽기 시리즈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리즈가 또 다른 오류를 낳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다. 만일 이러한 시리즈가 오씨가 말하는 색깔론으로 덧칠해진다면 그것은 더 커다란 문제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 깔끔하지 않은 진흥기금 시비를 보면서 나는 무명의 한 미술인으로부터 올려진 소박한 의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문에 기사 나왔길래... 아래 글들 쪽~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상갈님이니 이선영님이니 미술평론이니...하는 분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하더군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이에나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방의 이름없는... 무명작가입니다만 평생에 단 한번도 문진금 수혜를 받아본 적 없습니다.

문진금이... 유독 훌륭한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상금이나 또는 그 무엇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리 많은 기간에 걸쳐... 저들에게만 계속 지원이 되었는데...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 1. 29일자 문예진흥원 게시판)

자신을 지방의 이름없는 무명작가라고 소개한 사람이 말한 ‘하이에나 같다’는 표현은 참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작가의 눈에는 우리들의 이런 논쟁 자체가 진흙탕 싸움을 넘어서 하이에나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예술에 관련된 논쟁 자체가 하이에나 냄새를 풍겨서 되겠는가? 우리 모두 자성할 일이다. 한국은 지금 빠르게 국제화 흐름 속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예술적 논쟁 자체도 보다 업 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서로 힘있게 부딪치면서도 더욱 멋지고 가치있는 것들이 생산되어야 한다. 부딪치자. 힘이 있는 만큼 최대한로... 그러나 그 외중에 끝을 모를 나락으로 추락하지는 말자. 그리고 어쩌다가 추락할 때에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지 말고 혼자 깨끗이 추락하자. 🐺